

# 전문대학 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은경<sup>1</sup>, 박성희<sup>2\*</sup>

<sup>1</sup>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sup>2</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Byun, Eun-Kyun<sup>1</sup> and Park, Sung-H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B, C시의 전문대학 3개교에서 졸업을 앞둔 2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우울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6.0%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와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이에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for 196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0.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depression,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The predicting factors for depression wer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Those factors accounted for 26.0% of depression. The follow-up survey 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depression is needed and prevent depression program for developing depression are controlled.

**Key Words** : Depression, Employment stress, Major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하여 새로운 환경인 대학문화 속에서 진취적이고 능

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1].

이 중 우울은 모든 연령과 문화의 사람들이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생에서 우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우울은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켜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Corresponding Author : Sung-Hee Park(Changshin Univ.)

Tel: +82-55-250-3172 email: [angelpark75@cs.ac.kr](mailto:angelpark75@cs.ac.kr)

Received September 27, 2013

Revised (1st October 28, 2013, 2nd November 27, 2013, 3rd November 28,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여러 영역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가져온다[3]. 특히 대학생 우울증의 임상적 특징은 우울한 정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로 의욕상실, 주의집중력, 식욕과 체중의 변화, 불면증, 자살 충동 및 시도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4].

2010년 국민건강통계[5]에 의하면 20대 한국성인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남자 5.8%, 여자 18.1%이며, 대학생의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최근 우울했거나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비율은 23.2-51.0%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 취업, 학업, 대인관계, 가치관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6]. 대학생은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이시기에는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 및 정서적 성숙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비롯된 청년실업자 수의 증가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적개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올 수 있다[8].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이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으며[9],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중단 연구결과 실업은 우울과 불면, 집중력 저하, 불안 등의 신경증적인 호소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취업스트레스란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11]. 취업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초기부터 소위 ‘스펙쌓기’라 불리는 구직경력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스트레스가 장기화될수록 이 문제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도는 심각해진다[12].

특히 전문대학 졸업반 학생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학생보다 실제적인 취업준비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 경험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있다[13]. 이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인을 목적으로 입학하면서 선택한 전공은 자신의 향후 직업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미래의 진

망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14]. 또한 사회의 인력수급 불균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올바른 직업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입시제도로 인하여 형성된 대학의 서열화와 신입사원 선발기준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생들은 보유 능력이나 개인적 자질에 상관없이 상대적인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15].

또한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진학을 선택함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 낮아지게 되고 이는 취업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 및 전공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교와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였다[16]. 또한 Park[15]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는 전공·계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전공만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생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 직업을 정하고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에서 진로선택과 결정에 보다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진로에 대한 결정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진행될 것이고, 이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연구[17], 취업스트레스와 우울[18, 19, 20]에 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전공만족도와 우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의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B, C시의 2년제 전문대학 3곳에 연구자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학과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졸업을 앞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1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 효과크기 .20,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인 150명이 산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2.3 연구도구

#### 2.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의 4개 영역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Lee[21]가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70에서 .84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4이었다.

#### 2.3.2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는 Hwang[11]이 개발한 72문항을 도구를 Kim[22]이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4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준비스트레스, 외적 조건 및 기대 스트레스의 수준에 대해 '아주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취업스트레스 수준으로 나타낸다. Kim[22]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84이었다.

#### 2.3.3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23]이 개발하고, Lee[24]와 변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전혀없다' 0점에서 '매우 심하다' 3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 총점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0-15점은 경증, 16-23점은 중등도, 24-63점은 심한 우울로 분류하였다. Song[24]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으로 나타났다.

###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196명으로, 성별은 남자 103명(52.6%), 여자 93명(47.4%)으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20-23세가 181명(92.3%)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가 146명(74.5%), 있다 50명(25.5%)으로 나타났고, 학과는 상경계열 56명(28.6%), 인문계열 67명(34.2%), 공과계열 73명(37.2%)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기숙사 107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42명(21.4%), 집이 37명(18.9%), 기타 10명(5.1%)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성적은 중이 110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하는 45명(23.0), 상은 41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이 133명(67.9%)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3	52.6
	Female	93	47.4
Age	≤20-23	181	92.3
	≥24	15	7.7
Religion	Have	50	25.5
	None	146	74.5
Department of major	Commerce & management	56	28.6
	Humanities & social science	67	34.2
	Nature & engineering	73	37.2
Residential type	Home	37	18.9
	A boarding house	107	54.6
	Board oneself	42	21.4
Academic grade	Others	10	5.1
	High	41	20.9
	Middle	110	56.1
Economic state	Low	45	23.0
	High	31	15.8
	Middle	133	67.9
	Low	32	16.3

### 3.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전체 2.80±.86점, 교과 만족 2.92±.88점, 관계 만족 2.82±.88점, 일반 만족 2.86±.93점, 인식만족 2.61±.93점으로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다. 취업스트레스는 3.33±.94점, 우울은 12.61±9.0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N=196)

Variable	M±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2.80±.86	1.27	5.00
Course satisfaction	2.92±.88	1.77	5.00
Relationship satisfaction	2.82±.88	1.20	5.00
General satisfaction	2.86±.93	1.20	5.00
Cognition satisfaction	2.61±.93	1.00	5.00
Employment stress	3.33±.94	1.05	4.93
Depression	12.61±9.05	0	31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은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성별(t=61.917, p<.001), 학과(F=43.453, p<.001), 주거형태(F=8.561, p<.001), 학과성적(F=80.80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학과에서 상경계와 공과계는 인문계 보다 높고, 공과계는 상경계 보다 높았다. 주거형태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았고, 자취하는 학생보다도 높았다. 학과성적은 하보다는 중이 높고, 중보다는 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스트레스는 성별(t=86.323, p<.001), 연령(t=4.159, p=.043), 학과(F=65.903, p<.001), 주거형태(F=19.946, p<.001), 학과성적(F=39.52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사후검정한 결과 학과는 인문계는 상경계와 공과계 보다 높았고, 상경계는 공과계보다 높았다. 거주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과 자취하는 학생보다 높았다. 학과성적은 상보다는 중이 높았고, 중보다는 하가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은 성별(t=185.101, p<.001), 종교(t=15.971, p<.001), 학과(F=71.789, p<.001), 주거형태(F=69.435, p<.001), 학과성적(F=16.299, p<.001), 경제적 상태(F=23.460,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학과는 인문계는 상경계와 공과계 보다 높았고, 상경계는 공과계보다 높았다. 거주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과 자취하는 학생보다 높았다. 학과성적은 상보다는 중이 높았고, 중보다는 하가 높았다. 경제적 상태도 상보다는 중이, 중보다는 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3.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상관관계는 Table 4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전공만족도에서 상관계수는 -.496 (p<.001)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취업스트레스에서 상관계수는 .492 (p<.001)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서 상관계수는 -.822(p<.001)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Sex	Male	3.20±.82	61.917	2.83±.98	86.323	6.62±6.11	185.101
	Female	2.36±.66	(p<.001)	3.88±.40	(p<.001)	19.25±6.88	(p<.001)
Age	≤20-23	2.81±.89	.062	3.29±.97	4.159	12.38±9.30	1.623
	≥24	2.75±.39	(.803)	3.80±.28	(.043)	15.47±4.41	(.204)
Religion	Have	2.90±.79	.801	3.38±.57	.223	8.36±6.71	15.971
	None	2.77±.88	(.372)	3.31±.98	(.638)	14.07±9.30	(p<.001)
Department of major	Commerce & management <sup>a</sup>	2.82±.29	43.453	3.50±.34	65.903	11.64±6.04	71.789
	Humanities & social science <sup>b</sup>	2.20±.71	(p<.001) a>b, a<c	3.99±.40	(p<.001) a<b, a>c	20.24±7.59	(p<.001) a<b, a>c
	Nature & engineering <sup>c</sup>	3.33±.92	b<c	2.59±.98	b>c	6.36±6.81	b>c
Residential type	Home <sup>a</sup>	2.32±.94	8.561	3.87±.56	19.946	23.27±6.09	69.435
	A boarding house <sup>b</sup>	3.04±.94	(p<.001)	2.92±.98	(p<.001)	7.19±6.85	(p<.001)
	Board oneself <sup>c</sup>	2.59±.23	a<b, b>c	3.87±.36	a>b, b<c	17.33±5.71	a>b, a>c
	Others <sup>d</sup>	2.98±.04		3.43±.05		11.40±1.27	a>d, b<c
Academic grade	High <sup>a</sup>	3.60±.85	80.808	2.59±.99	39.522	8.10±6.34	16.299
	Middle <sup>b</sup>	2.89±.61	(p<.001)	3.28±.82	(p<.001)	11.99±8.11	(p<.001)
	Low <sup>c</sup>	1.87±.44	a>b>c	4.11±.49	a<b<c	18.24±10.53	a<b<c
Economic state	High <sup>a</sup>	2.54±.80	1.855	3.37±.87	2.961	5.16±7.98	23.460
	Middle <sup>b</sup>	2.86±.90	(.9)	3.23±.99	(.054)	12.76±8.72	(p<.001)
	Low <sup>c</sup>	2.80±.68		3.68±.53		19.22±5.36	a<b<c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N=196)

Variable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Major satisfaction	1		
Employment stress	-.822 (p<.001)	1	
Depression	-.496 (p<.001)	.492 (p<.001)	1

### 3.5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62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우울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N=196)

Variable	B	SE	β	t	□
constant	12.738	6.374		1.99	.047
Major satisfaction	-2.989	1.141	-.283	-2.62	.018
Employment stress	2.479	1.038	.259	2.39	.010
Adj. R <sup>2</sup> =.260 F=35.285(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므로 우울을 예방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2.80±.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관관련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5]에서 전공만족도 3.39점보다는 낮았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6]에서 전공만족도 2.39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전공 구별없이 대학생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전체 전공만족도 점수는 낮았지만, 특정 전공분별 전공만족도는 나타나 전공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성별, 학과, 주거형태, 학과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과(전공계열),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7]와 유사하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생 전체나 학과별 전공만족도의 차이와 일반적 특성에 다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스트레스는 3.33±.9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28]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2.42±.59점보다 높았고, Kim과 Noh[29]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3.75점 보다는 낮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다른 취업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학과, 주거형태, 학과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Kim과 Choi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학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18]와는 차이를 나타냈고, Hwang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학년, 학과, 성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1]와는 유사하다. 대학생들에게 취업이 경제침체와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대두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진 상황[8]은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률이 높은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와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 전공별 차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은 12.61±9.0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oon과 Lee[19]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17.20±9.43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Kim과 Choi[18]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10.2±8.0 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우울 평균점수는 경

한 우울로 확인이 되어 대학생들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은 성별, 종교, 학과, 주거형태, 학과성적, 경제적 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Kim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과 경제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0]와 유사하고, Lee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상태, 거주형태,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다. 취업스트레스가 성별, 학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Kim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과대 학생에 비해 인문대 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낸 결과[20]와도 유사하다.

대학생들의 우울은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주어 자살위험이 될 수도 있다[30]. 청소년 자살을 연령대로 비교해보면, 10-14세 1.9명, 15-19세는 8.3명, 그리고 20-24세는 18.3명으로 20세 이후 높은 자살률을 볼 수 있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자살자 수에 대한 자료에서 초·중·고생 자살자 수를 합친 수보다 대학생 자살자 수가 더 많았다[32]. 따라서 우울증의 사전조사와 예방에 있어 대학생은 중요대상이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우울의 상관관계에서 우울과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취업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im, An과 Kim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결과[12]와 유사하다. 또한 Hwang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11]와도 유사하다. Park의 전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반 학생의 우울감이 4년제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우울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13]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전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변수의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Hong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우문제, 학업문제 진로문

제를 나타낸 결과[1]와 유사하다. 이는 전문대학생에게서 학업과 진로 특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므로 우울을 예방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는 의의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전공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J. Y. Hong, "How the university students stress affects their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4.

[2] A.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Jossey-Bass, San Francisco, 1993.

[3] E. H. Ha, K. J. Oh, D. H. Song, & J. H. Kang,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3, pp. 262-279, 2004.

[4] Associatio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4th ed), Washington, D. C: Associatio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

[6] K. K. Chon, K. H. Kim, &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pp. 316-335, 2000.

[7] O. H. Bae, & S. O. Hong, "The study of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degree 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17, No.1, pp. 27-34, 2008.

[8] M. J. Park, J. H. Kim, & M. S.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1, pp. 417-435, 2009.

[9] H. K. Lee, I. K. Kim, & Y. C. Park,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the 20's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6, No.2, pp. 87-101, 2000.

[10] Hammarstrom, A., & Janlett, U.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Vol.20, pp. 293-305, 1997.  
DOI: <http://dx.doi.org/10.1006/jado.1997.0086>

[11]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1998.

[12] J. E. Sim, H. Y. An, &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2, No.1, pp. 103-118, 2011.

[13] K. R. Park,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sen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6.

[14] B. S. Kim, T. W. Chung, "Effect analyses on the employment efficacy promoting programme (EEPP) for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8, No.1, pp. 206-227, 2005.

[15] S. M. Park,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ir job-seek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2013.

[16] J. Y. Kim, J. Y. Kang, M. R. Jun, B. Y. Choi, & E. S. Jung,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the campus-life and mental health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999 freshman at ansan campus of 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17, No.1, pp. 155-205, 1999.

[17] C. S. Kim, "Effects of pursued job valu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certified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university graduates on their job search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18] E. J. Kim, K. W. Choi,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19, No.2, pp. 231-239, 2012.

[19] M. S. Yoon, H.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3, pp. 109-137, 2012.

[20] H. J.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4.

[21] S. Y. Lee,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22] N. H. Kim, "On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stress characterized in their responses to PITS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7.

[23] A. T. Beck,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1967

[24] Y. H. Lee, J. Y. Song. "A Study for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No. 1. pp. 98-113, 1991.

[25] S. M. Park,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11.

[26] S. H. O,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with major and compromising type for vocational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8.

[27] J. S. Nam,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psychological trait variables and university life trai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28] H. C.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1, pp. 157-1840, 2013.

[29] B. M. Kim, J. H. Noh, "The influence of job search

related stress on learning inten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ourism Science, Vol.37, No.4, pp. 257-280, 2013.

[30] M. K. Kim, "Relationship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s emotion and soci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2, pp. 101-129, 2011.

[31]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 97-107, 2008.

[32] J. Y. Lee,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7.

**변 은 경(Eun-Kyun By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우울, 재활

**박 성 희(Sung-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전인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간호학, 노인